

한미정상회담 2주 내 백악관서 열려…동맹·안보 ‘시험대’

협상 세부 내용 확정 등 후속 논의…농축산물 등 해석 줄다리기 가능성
북핵·북미 대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주한미군 재조정 등 의제 오를듯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든 ‘외교적 고비’를 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추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불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이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이날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두 달이 가깝도록 미뤄져 온 한미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취임과 동시에 다진 한미 통상 파고를 넘어선 이대통령으로서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벌이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투자) 액수는 2주 내로 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8월 중순을 전후해 정상회담이 이뤄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각종 돌발 변수로 미뤄져 온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녹록지 않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집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날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간 설명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였던 타결 조건이나 그 해석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개방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양국 간 미묘한 온도차가 나는 부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비 협상을 비롯해 이번 협상안에 담기지 않은 분야에 대한 대미 협상 준비에도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 문제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주요 의제다.

한반도라는 틀을 벗어나 아시아태평양의 안보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재조정 관련 문제가 정상 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년 이상 임기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

남이라는 점에서 정상 간 ‘케미’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에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불신이 장기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필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기업 총수들 가세 ‘원팀 외교’ 효과 톡톡

이재용·정의선 회장 합류…한화 김동관 부회장 ‘마스가’ 구체화

협상 타결 막후 지원

한미 관세 협상이 데드라인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극적으로 타결되까지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도 꺾꺾 등판해 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했다.

여기에 주요 기업들도 미국과의 투자 협력 계획을 연이어 내놓는 등 민관 ‘원팀’ 외교가 우리 경제의 명운을 건 협상을 타결로 이끌었다.

지난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카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했다.

연이어 2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 총수들까지 등판했다.

이재용 회장은 방한 직전 테슬라와 23조원에 육

박하는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마스가 구체화 등을 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은 펄판 장관의 한국 방문 당시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함께 방문한 2개 사업장 중 하나다. 이들은 이번 협상에서 자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통’ 경제인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 “국익 중심 외교 성과”…국힘 “내용 아쉽다”

여야 반응

민주 “한미 산업 협력·동맹 강화”
국힘 “車 15% 관세 사실상 손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손해”, “내용상으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가 절하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

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

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EU는 1.94%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며 “동일한 관세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는 (관세율을) 낮춰야 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